

종합유선시범방송 시청자 성향

고 수 자 (종합유선방송시범사업단 편성 3부장)

연재목차

- ① 세계의 케이블TV의 현황과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 ② 한국통신의 종합유선방송 추진경위와 현황
- ③ 국내 종합유선시범방송 이용자 성향분석

I. 머릿말

한국의 실정에 맞는 고유의 유선방송 모델 도출을 위해 지난 7월1일 부터 실시되고 있는 한국통신의 종합유선시범방송은 궁극적으로 시범방송 실시 기간 동안 부각되는 문제를 수습하여 종합유선방송 법안을 마련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시범방송 개시 4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은 이미 국회에 상정되는 단계에 까지 와 마무리 된 상태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볼 때 원래 1년 예정이었던 시범방송은 단지 여론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았고, 법안은 시범방송에서 도출되는 문제와 상관없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은 원래의 시범방송 목적설정에 부응하여 시범방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4월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동신 교수에게 목동, 상계동 유선방송 청약자 8천5백가구의 10%인 8백50가구를 대상으로 케이블 TV 이용성향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를 의뢰했다.

5월말에 집계·발표된 이 연구는 시청자의 성향이나 기대를 반영하지 않고 입안된 종합유선방송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므로 다시 한번 거론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행해진 이와 유사한 조사연구와 비교해 볼 때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실제 유선방송 청약자인 점에서 시범방송의 진정한 의의인 현장 사례연구의 직접적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연구의 초점이 유선방송의 성패를 가늠하는 소프트웨어, 즉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을 위한 수용자의 프로그램 이용성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귀중한

실증적 자료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II. 연구결과

1. 종합편

이 조사연구는 인구특성, 일일생활시간 조사, 종합(기존방송 이용성향과 유선방송에 대한 성향), 연예·오락프로그램, 지역정보·교양·교육, 어린이 프로그램,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다.

시범방송 실시지역인 목동과 상계동 주민은 상이한 인구특성을 지닌 두 집단으로 나타났다.

목동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40대이며, 대졸자가 61.7%, 월수입 1백만~1백50만원, 전문직·관리직의 집단이었으며, 상계동은 30대가 주류를 이루며, 대졸자가 46.3%, 월수입 50만~1백만원, 사무직과 주부가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목동은 중상류의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중년층의 집단이고, 상계동은 중하류 젊은층의 주거지역으로 이 두 집단의 생활시간대, 여가선용, 방송시청시간, 프로그램 선호가 동일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범방송의 일률적 광역편성은 지양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시청자를 특성별로 차별화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른 프로그램을 편성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편에서는 뉴미디어 유선방송의 수용전망을 올드미디어인 기존 공중파 방송 이용 형태를 분석, 유출했다.

이를 기본으로 또한 유선방송에 대한 성향도 직접 문의, 기존 TV와 비교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정착될 유선방송에 대한 수용자의 욕구를 분석했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일요일에는 5시간 이상, 토요일에는 3시간 내지 5시간, 평일에는 1시간 내지 3시간 정도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사람은 일요일에 41%, 토요일에 20.2%에 이르고 이러한 주말 TV 시청량은 목동지역이 상계동에 비해 여가활동으로 인해 약간 적은 편이다.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뉴스가 압도적이었으며, 그 다음이 드라마·영화의 순서로 밝혀졌다. 그밖에 스포츠, 코미디, 특집, 만화, 쇼, 정보, 교육, 교양의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기존 TV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결과에 의하면 불만이나 만족을 명확히 밝히기 보다는 그저 그렇다는 식의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4.4%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17.8%는 만족감을 표시했지만 만족감을 표시한 사람들도 그 이유를 달리 선택할 매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명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요된 만족감을 암시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광고과다가 38.9%로 가장 많고, 다양성 부족이 27.3%, 쓸모있는 정보가 적다가 11.8%이다.

이와같은 우리나라 시청자의 기존방송에 대한 평가를 감안하면 다채널에 의한 채널별 전문화와 광범위한 선택의 다양성을 특성으로 갖고 있는 유선방송은 Pay-TV와 더불어 발전 전망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유선방송 채널은 영화채널이 71.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뉴스채널 50.4%이며, 그밖에 교육채널, 음악채널, 취미오락채널, 경제채널, 위성방송채널등의 순이다.

지방자치제 도입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지역방송채널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겨우 4%로 유선방송과 지역채널의 밀착성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아직 결여되어 있음을 대변해 주고 있다.

유선방송의 종합정보 서비스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목동과 상계동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공통으로 방법서비스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의료처방, 상품 구입정보, 예약서비스의 순으로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유선방송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55%가 방송의 다양화, 23%가 방송의 전문화를 들어 기존방송에 대한 욕구불만을 유선방송에서 충족하려고 하는 수용자의 잠재의식을 입증하고 있다.

2. 프로그램편

각 프로그램편 조사결과에 의하면 연예·오락프로그램 가운데 영화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3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유선방송 채널별 필요성에서 영화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점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드라마가 31.8%, 코미디가 17%이며 쇼에 대한 선호도는 예상보다 낮아 겨우 6.9% 밖에 되지 않았다.

영화를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대체로 남자·고학력·전문직·학생이었고,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선호하는 사람들 보다 학력이 낮고, 여자·주부들이 많았다.

코미디는 군인과 기술직, 쇼는 노동직 계층이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 오락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는 TV드라마에서 소재빈곤(30.8%), 현실성없는 내용(23.2%), 비윤리적 내용(14.5%), 오락위주(11.8%)등을 들고 있어 높은 선호도를 보임과

동시에 높은 문제의식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코미디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저속한 언어 및 행동(54.6%), 소재의 빈곤(33.3%)이 지적되었으나 쇼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선호도를 대변하듯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24.4%).

TV 외화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는 재방송 과다를 제일 많이 들었고(31.8%), 폭력과다(25.6%), 현실성 없는 내용(9.2%), 오락위주의 내용(7.1%)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매체로서 유선방송의 특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 이 조사에서는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정보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5년이하의 비교적 짧은 거주기간의 조사대상자가 전체의 97.1%로 나타났다.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문제는 교육, 교통, 공해문제의 순이었다.

지역문제에 대한 정보원은 이웃주민, 반사회, 지역언론매체의 순으로 주거지역 문제에 대해 주로 대인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반면 상품구입 정보원은 신문·TV 안내·팝플렛의 순으로 주로 매스미디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의 주거지역에 새로운 지역언론매체의 필요성을

전체의 80%가 호소하고 있다.

교양프로그램 가운데 자연(26.3%), 역사·지리(22.3%), 고전음악(12.7%), 한국전통문화(11.7%)의 순으로 관심도를 보였으며, 음악프로그램에서는 영화음악, 고전음악, 흘러간 가요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밝혀졌다.

정보프로그램에서는 요리 및 가정생활정보(31.8%)가 가장 높았으며, 여행·경제·교육 및 진학정보 프로그램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학교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나 기타 교육 프로그램에서 상계동 지역은 기술강습, 취미프로그램을, 목동지역은 어학강좌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높았다.

어린이들의 TV시청시간은 1~2시간(83.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분~1시간(21.9%)과 2~3시간(13.6%)의 순이다.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만화(77.1%), 외국 어린이드라마(45.7%), 교육프로그램(43.2%)의 순이며, 어린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다양성 부족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현 TV 스포츠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는 TV방송에 대한 일반적 만족도와 비슷하게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이고(66.9%), 만족 또는 불만족을 표시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즐겨보는 TV스포츠 프로그램은 야구(50.2%)가 가장 많고 농구, 축구, 스포츠하이라이트 순이지만 성별·연령별로 그 선호도가 심한 차이를 보였다.

TV스포츠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는 일부 스포츠에 편중되어(28.5%) 지나치게 방송횟수가 많고(17.4%) 다른 프로그램 스케줄에 의해 중단되는 점(16.7%)을 지적했다.

유선방송 스포츠프로그램에 새로이 편성될 수 있는 스포츠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가 현재 하고 있는 또 앞으로 배우고 싶은 스포츠 종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현재 하고 있는 스포츠로는 수영이 가장 많고(26%), 등산, 볼링, 테니스, 배드민턴, 에어로빅, 탁구의 순이었다. 앞으로 배우고 싶은 스포츠는 현재 하고 있는 스포츠 종류 가운데 없는 골프(21%), 승마(11%), 스키(7.7%), 사이클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도 많았다.

3. 토의 및 결론편

토의 및 결론편에서 우선 시범방송 방영시간인 낮 12시에서 5시에는 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의의가 감소되므로 기존 공중파 방송과 경쟁내지 보완 기능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녁

시간대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특히 기존방송에 대한 만족도가 달리 선택할 매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유선방송이 보완적 매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가능성을 시범방송에 부여해야 되기 때문이다.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뉴스와 오락프로그램이며, 가장 즐겨보지 않는 프로그램은 교양과 교육프로그램이라는 명백한 프로그램별 선호도는 앞으로 이윤추구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생겨날 유선방송 오락채널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프로그램의 저질화도 예상된다.

그러나 현방송의 문제점이 광고과다와 다양성 부족으로 집약된 점을 고려, 채널별 전문성을 안배하는 원칙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유선방송의 채널별 필요성에서 압도적으로 지적된 영화채널 다음의 뉴스채널에 대한 필요인식은 걸프전쟁시 위력을 과시한 24시간 뉴스만 방영하는 CNN과 같은 전문 뉴스채널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도래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지역매체로서의 유선방송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유선방송을 통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지역채널로 정착될 수 있는 편성방향을 제시해야만 한다.

■
**지역매체로서의
유선방송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유선방송을 통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지역채널로 정착될 수 있는
편성방향을
제시해야만
한다.**
■

교육프로그램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학교교육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어 유선방송의 교육채널은 학교교육을 위주로 전문적으로 편성하여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채널이 되어야 한다고 제의했다.

어린이 프로그램과 스포츠 프로그램의 선호도는 기존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 항목에 국한, 현재 기존방송에 편성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스포츠 프로그램들을 편성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기호자체를 다양화 시킬 수 있는 계도적 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방송풍토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청자들의 일반적 프로그램 기호자체가 극히 단순화되어 있어 뉴미디어 유선방송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 욕구창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예로서 어린이 방송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뉴스, 오락, 교양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순전히 어린이를 위한 채널 특성을 살리도록 개발되어야만 한다.

Ⅲ. 맺음말

이 조사의 결과는 시범방송 개시전에 실시된 것이므로 시청자들이 유선방송을 일정기간 동안 시청한 후 2차 조사를 실시해야 종합유선시범방송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용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전국에 확산될 유선방송에 대비, 시청자의 성향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적절한 소프트웨어 공급정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이다.